



간호대학생의 우울, 불안, 스트레스와 소진과의 상관관계연구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Depression, Anxiety, Stress and Burnout in Nursing Students

충청대학교 간호학과 11조

이은영, 김수정, 이유정, 임지선, 김윤진, 김아름, 진예림, 정재진, 서가을, 정혜연

지도교수: 이예은

I. 연구의 필요성

1. 대학생들은 학업, 인간관계, 취업 등으로 인해 우울, 불안, 스트레스가 증가한다.
2. 간호대학생은 학과가 가지는 특이성(과도한 학습량, 엄격한 행동 규범, 국가시험에 대한 압박감, 다양한 임상실습 등)으로 인해 더욱 많은 소진을 경험하고 있다.
3. 따라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우울, 불안, 스트레스와 소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고, 이를 통해 간호대학생의 소진을 감소시키기 위한 간호중재가 필요한 상태이다.

II.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의 우울, 불안, 스트레스와 소진과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소진의 차이를 파악한다.
2. 대상자의 우울, 불안, 스트레스, 소진을 파악한다.
3. 대상자의 우울, 불안, 스트레스, 소진 간의 상관관계를 규명한다.

III. 연구방법

1. 연구 설계 : 서술적 조사 연구
2. 연구 대상 : C지역의 C대학 전 학년 재학생 408명 (84.30%)
3. 자료수집 기간 : 2018. 6. 14 ~ 2018. 6. 22
4. 자료 분석 방법 : SPSS/Statistics v25 프로그램을 이용 (기술통계,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5. 연구 도구
 - ① 우울, 불안, 스트레스: DASS 21 (Depression Anxiety Stress Scale) 21문항, 4점 likert 척도
 - ② 소진: MBI(Maslach Burnout Inventory) 22문항, 6점 likert 척도

IV. 연구결과

Table 1. Differences in Burnout by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408)

Variables	Categories	n(%)	M±SD	t or F	p	Scheffé
Gender	Male	69(16.9)	46.19±16.46	2.67	<.001	
	Female	339(83.1)	51.86±16.02			
Grade	First Grade	118(28.9)	47.53±13.73	0.68	.51	
	Second Grade	114(27.9)	48.44± 15.81			
	Third Grade	95(23.3)	53.42± 17.28			
	Fourth Grade	81(19.9)	56.32± 17.18			
Religion	Yes	132(32.4)	50.42±17.28	0.42	.68	
	No	276(67.6)	51.13±15.71			
Personality	Introvert	229(56.1)	50.15± 16.32	-1.06	.29	
	Extrovert	179(43.9)	51.86± 16.08			
Residential Types	House	250(61.3)	50.92±15.11	1.06	.30	
	Dormitory	63(15.4)	49.01±17.27			
	Living Alone	95(23.3)	52.09± 18.25			
An Motivation For The Department of Nursing Science	Arbitrary ^a	224(54.9)	50.20±15.76	6.61	<.001	
	Recommendation ^b	79(19.4)	52.58±16.46			
	High employment rate ^c	69(16.9)	52.32±16.14			
	Keep up with one's grades ^d	12(2.9)	38.25±13.71			
	Professional position ^e	24(5.9)	54.10±18.78			
Academic achievement	More than 4.0 ^a	29(7.1)	59.41±15.67	2.54	.04	a)e
	3.5~4.0 ^b	101(24.8)	52.20± 16.81			
	3.0~3.5 ^c	112(27.2)	51.47± 16.82			
	Less than 3.0 ^d	52(12.0)	49.96± 17.27			
	No record (First Record) ^e	114(28.9)	47.46± 13.81			
Nurses Satisfaction	High dissatisfaction ^a	19(4.7)	63.16± 20.08	3.63	.01	a)b)c)e
	Slight dissatisfaction ^b	59(14.5)	55.69±15.76			
	Normal ^c	194(47.5)	48.81±16.03			
	Slight satisfaction ^d	108(26.5)	51.71±15.05			
	High satisfaction ^e	28(6.9)	43.82± 13.56			
Clinical Practical Experience	Yes	176(43.1)	54.94±17.13	4.49	<.001	
	No	232(56.9)	47.84±14.80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High dissatisfaction ^a	4(1.0)	51.75±26.97	5.52	<.001	b)c)f
	Slight dissatisfaction ^b	17(4.2)	64.88±13.31			
	Normal ^c	75(18.4)	55.08±19.21			
	Slight satisfaction ^d	59(14.5)	51.92±15.08			
	High satisfaction ^e	21(5.1)	53.95± 14.61			
	No experience ^f	232(56.9)	47.97± 14.76			

Table 2. Levels of Depression, Anxiety, Stress and Burn out (N=408)

variables	Min	Max	M±SD
Burn Out Score	11.00	97.00	50.9±16.21
Depression Score	0.00	20.00	4.41±4.02
Anxiety Score	0.00	17.00	3.42±3.52
Stress Score	0.00	21.00	5.46±4.35

Table 3. Effects of Depression, Anxiety, and Stress On the Burn out of Nursing College Students (N=408)

variables	Depression Score	Anxiety Score	Stress Score	Burn Out Score
	r(p)	r(p)	r(p)	r(p)
Depression Score				
Anxiety Score	.75(<.001)			
Stress Score	.79(<.001)	.78(<.001)		
Burn Out Score	.45(<.001)	.40(<.001)	.45(<.001)	

V. 결론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소진 정도는 성별(F=2.67, p<.001), 학점(F=2.54, p=.04), 간호학 지원 동기(F=6.61, p<.001), 간호학만족도(F=3.63, p=.01), 임상실습여부(F=4.49, p>.001), 임상실습만족도(F=5.52, p>.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2. 간호대학생의 우울 정도는 평균 4.41±4.02점이었고, 불안 정도는 평균 3.42±3.53점이었다. 스트레스 정도는 평균 5.46±4.36이었고, 소진은 평균 50.90±16.21점이었다.
3. 대상자의 우울(r=.45, p<.001), 불안(r=.40, p<.001), 스트레스(r=.45, p<.001)는 소진과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VI. 제언

1. 본 연구는 C지역 C대학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조사 연구하여 일반화하기에 한계가 있으므로 지역분포 등을 고려하여 대표성 있는 표집을 통한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2.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우울, 불안, 스트레스와 소진과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앞으로 간호대학생의 소진을 감소시키기 위한 중재 연구를 제언한다.